

온달 설화의 현대적 변용-최인훈작 「온달」과 「온달설화」의 대비적 고찰

정찬영*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기본적 결구로서 '꿈'이야기 |
| 2. 「온달」과 「온달설화」의 차이점과 그 의미 | 4) 다른 설화 모티브(motif)의 첨가 |
| 1) 중심인물의 이동 | 3. 맺음말 |
| 2) 공주와 온달의 분리현상 | |

1. 머리말

설화문학은 그 자체로서의 문학성 뿐만 아니라 서사문학의 원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현대소설에서는 설화를 변용하여 그 현대적 의미를 문고자 하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는 설화의 일차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에서부터 설화를 패러디하는 작품들까지 여러 경향을 보이고 있다.¹⁾

*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강사

1) 설화를 근간으로 하는 소설작품은 더욱 많이 있겠지만 과문한 탓으로 필자가 확인한 설화와 현대소설은 다음과 같다.

驢耳說話(삼국유사 권2 '四十八景文大王'條)와 방기환의 「귀」(문학예술, 1957.11)

이 글은 설화의 현대적 의미를 찾으려는 작품들에 대한 연구의 일단으로 우선 온달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삼국사기』 소재 온달이야기는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와 혼인하여 고구려의 명장으로 성장하여 국가를 구한다는 이야기이다. 그 문학적 소재가 뛰어난 탓으로 이 이야기는 최인훈의 「온달」과 김지원의 「편강공주와 바보온달」 등의 현대소설로 계승된다는 점에서 설화의 소설화라는 우리소설의 한 특성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최인훈의 「온달」과 「온달설화」의 대비적 고찰을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려 한다.

최인훈의 「온달」(현대문학, 1969.7)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의해 『삼국사기』 소재 「온달설화」와 대비된다.

첫째, 작중 중심인물(main character)의 이동이다. 곧 「온달설화」가 공주 중심의 이야기로 서술되고 있다면, 작품 「온달」은 온달중심의 이야기로 바뀌어져 있다.

- 供妻說話(고려사 악지 권71)와 정한숙의 「禮成江曲」(현대문학, 1956.9)
 海娘祠傳說과 정한숙의 「海娘祠의 慶事」(사상계, 1957.3)
 天官寺傳說(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과 황순원의 「차라리 내목을」(신동아, 1967.8)
 溟州歌傳說과 황순원의 「비늘」(현대문학, 1963.10)
 도미설화(삼국사기 열전)와 박종화의 「아랑의 정조」(문장, 1940.12)
 원왕생가 부대설화와 김동리의 「원왕생가」
 온달설화와 최인훈의 「온달」(현대문학, 1969.7) 및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현대문학, 1970), 김지원의 「편강 공주와 바보온달」(문학사상, 1985.2)
 꽃전설과 오영수의 「睡蓮」(현대문학, 1961.10) · 「실겉이꽃」(현대문학, 1968.3)
 力士설화와 김동리의 「황토기」(문장, 1939.5) 및 김승옥의 「力士」(문학춘추, 1964.7)
 두견새 전설과 오영수의 「소쩍새」
 影池傳說과 장용숙의 「전설」(현대문학, 1958.5)
 長者뚝 전설과 한무숙의 「돌」(문학예술, 1955.12)
 ‘元眺不羈’와 박용숙의 「沒柯斧」(한국문학, 1979.2)
 志鬼傳說과 박용숙의 「志鬼正傳」(문학사상, 1973.3)
 力士설화와 황석영의 「壯士の 꿈」(문학사상, 1974.1)
 아기장수전설과 최인훈의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세계의 문학, 1976.9)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설화와 최인훈의 「동동 樂浪동」(세계의 문학, 1978.6)
 최치원전과 김동리의 「旅愁」
 菩薩行化 설화와 김동리의 「저승새」(한국문학, 1977.12)

둘째, 「온달설화」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온달과 공주의 괴리현상(계층의 괴리와 육신의 괴리)이, 작품 「온달」에서는 내면적으로 심화 확대되어 그 비극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셋째, 작품 「온달」은 ‘꿈’으로 시작되어 ‘꿈’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꿈’이야기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온달설화」에는 없는 이 ‘꿈’ 이야기는 작품 「온달」의 기본적 결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넷째, 다른 설화 모티브의 첨가이다.

본고는 위의 네 가지 사항이 실제 작품 속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2. 「온달」과 「온달설화」의 차이점과 그 의미

최인훈 작 「온달」은 소설과 희곡의 형식을 겸용한 전 4회에 걸친 장회적 작품²⁾인데 그 경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회

- ① 온달은 노송(老松)을 도끼로 베어 버린다.
- ② 그 사이로 구렁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 ③ 동굴로 돌아가던 도중 온달은 길을 잃는다.(사실은 동굴 속에서 ‘꿈’을 꾸게 된다)
- ④ 구렁이가 변한 미녀와 만난다.
- ⑤ 같이 사흘 밤낮을 보낸다(交媾)
- ⑥ 구렁이가 온달을 죽이려 한다.
- ⑦ 절간의 종이 울려 온달은 살게 된다.
- ⑧ 온달이 절간에 가 보니 그의 어머니가 머리가 터져서 쓰러져 있었다.
- ⑨ ‘꿈’을 깬다. 온달은 급히 집으로 달려 간다.

2) 장덕순,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대출판부, 1970, 289쪽

2회 - 온달의 통나무집

- ① 대사(大師)와 공주가 온달의 집에서 친다.
- ② 온달과 공주가 만난다.
- ③ 온달이 '꿈'에 본 여인과 꼭 같음을 알고 놀란다.
- ④ 공주는 온달과 그 어머니에게 함께 살 것을 약속한다.

3회 - 공주궁. 1막(2회)에서 십년 후

- ① 공주는 온달을 기다리다가(온달은 출정 중) '꿈'을 꾸다.
- ② '꿈'에서 죽은 온달의 영(靈)이 나타나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알려준다.
- ③ '꿈'에서 깨어난 공주는 전장으로 향한다.
- ④ 온달의 판이 움직이지 않는다.
- ⑤ 공주가 위로하니 판이 움직였다.

4회 - 온달의 통나무집

- ① 공주가 온달의 집에 다시 나타난다.
- ② 대사가 온달의 '꿈'이야기를 공주에게 들려준다.
- ③ 서울에서 온 군사들이 공주를 죽인다.
- ④ 온달모의 독백 ('산에서 자는 날도 아닌데 왜이리 늦는구')

다음으로 「온달설화」의 경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① '破衫弊履 往來於市井間'하여 時人으로부터 '愚滯達'로 불리움.
- ② 평강공주의 시집 이야기.
- ③ 평강공주의 '出宮獨行'.
- ④ 평강공주가 온달을 찾아가서 우여곡절 끝에 부부결연을 맺음.
- ⑤ 온달이 공주의 지략으로 명마를 갖고 평강왕의 사냥에 따라 나섬.
- ⑥ 마침내 온달은 평강왕으로부터 '是吾女婿也'란 말을 듣게 됨(왕의 인정)
- ⑦ 온달이 대형(大兄)의 작위를 받음.
- ⑧ 온달이 전사함.
- ⑨ 온달의 판이 움직이지 않음.

⑩ 공주가 무관(撫棺)하니 관이 움직임.

⑪ 대왕이 이를 듣고 비통해 함.

1) 중심인물의 이동

온달설화가 공주중심의 이야기라면 최인훈의 작품 「온달」은 온달중심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다음 몇 가지 사실로써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온달의 ‘꿈’이야기의 첨가된다는 점이다. 작품 「온달」의 1회는 온달의 ‘꿈’으로부터 시작된다. 「온달설화」가 공주의 입장에서(공주중심의 이야기) 공주와 온달이 만나게 되는 내력만을 밝히고 있는데 반하여, 「온달」은 온달의 입장에 서서(온달중심의 이야기) 온달과 공주의 만남이 ‘인연’에 의한 필연적 결과임³⁾을 암시해 주고 있다.

둘째 ‘양마’ 모티브가 삭제⁴⁾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온달이 출세하게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양마’의 모티브 - 공주의 역할이 지대함 - 가 빠져버린 대신, 「온달설화」에는 없는 온달의 신이한 힘을 보여 줌으로써⁵⁾ 온달을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불완전한 전기적 형태(biographical form)⁶⁾를 갖춘 「온달설화」는 비로소 보다 완전한 ‘영웅의 일생’⁷⁾으로서의 전기적 형태를 갖춘다.

세 번째로는 공주 세력이 약화되고 급기야는 공주가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다. 온달의 사후, 공주는 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온달이 죽고 없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온달장군도 돌아가신 이 마당에 공주는 궁을 지키지 않고 왜 함부로 거동하셨소? (4회, 공주를 데리러 온 장교의 말)

3) 강성전, 한국설화의 현대적 변용, 동악어문논집, 제11집, 1979, 28쪽 참조

4) 위 논문, 29쪽

5)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음(2회), 송아지만한 꿈을 메고 다님(2회), 산중에서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는 소문이 퍼짐(3회)

6) 이계선, 韓國短篇小說研究, 일조각, 1977, 30쪽

7)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집, 1971

세상이 바뀔 줄도 모르시오? 온달없는 공주가 누구를 어떻게 한단 말이오. (상동)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세력을 잃은 공주는 굶기야 온달과 마찬가지로 장교와 그 부하에 의해 살해되고 만다. 온달이 없는 공주는 이미 무의미한 존재로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주의 죽음은 필연적인 귀결인 것이다. 이는 공주 중심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온달설화」가 온달 사후의 공주에 대해 별 언급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온달설화」에서의 공주중심의 이야기가 「온달」에서 온달 중심으로 옮겨온 의미는 무엇인가. 이 중심인물의 이동은 후술하게 될 작품 「온달」의 비극성에 관계된다. 작품 「온달」은 「온달설화」에 비해 완전한 전기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곧 중심인물 온달이 죽은 후 이에 딸린 인물인 공주도 같이 죽게 함으로써(비극적 종말) 그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공주와 온달의 분리현상

작품 「온달」에서는 온달과 공주가 분리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공주와 온달의 내면적 분리현상은 다음에 인용되는 공주와 온달의 대사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산짐승과 더불어 살던 이몸에게 사람 세상의 온갖 지혜를 가리키신 당신, 창으로 꿈을 잡듯, 덮으로 이라를 잡듯, 적의 군사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싸웠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신라와 백제의 성과 장수를 나는 취하였습니다. (중략)

공주, 고구려 평양성의 인심은 무섭더이다. 이동은 산에서 활을 쏘고 창으로 끼니를 얻던 그때처럼 편한 마음을 한신들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구름처럼 도인 평양성에서 나는 눈멀고 귀먹은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보지도 듣지도 알았습니다. - 2회, 죽은 온달이 공주의 꿈에 나타나서 한 말

나를 꿈에서 만나셨다고? 내가 장군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나를 알고 계셨다고? 왜 이렇게 늦은가? 모든 일이 끝나고 소용없이 되었을 때 진실이 드러나다니? (중략) 장군께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내게는 알아 들게 할 수 없던 꿈의 세월 때문에, 장군께서는 산 속의 그 밤을 자연스럽게 사지는 것

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짐작. 아, 내가 바로 그랬었는데. 나는 그 시절, 어릴 때 그 무섭고 그리운 컷가의 세월이 그대로 자연스러웠는데 장군께서는 그렇지 못하시리라는 염려. 우리는 같은 어려움을 살았었군. 그 염려 때문에, 장군과 나의 삶이 생소하지 않은 것을 알리려고 나는 장군께 글을 가르치고, 술책을 일러드리고, 장군이 되시게 하고, 궁중이 어떤 곳인가를, 누구를 죽이셔야 하는가를 일러드렸지. 장군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안타까움을, 서먹함을 거둬버리기 위하여. 서로의 꿈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 미안스러움을 매꾸기 위해서.(4회, 대사로부터 온달의 '꿈'이야기를 듣고 난 후 공주의 독백

이같은 분리현상은 작품 「온달」의 모두에 온달이 노송을 배어 버리는 행위로부터 연유된다. 곧 온달에게는 '멜잡'이 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노송이, 구령이로 변한 '하늘의 딸'(天上女)에게는 '승천하는 길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달과 천상녀간의 분리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온달이 지상적인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지상적 인물'이라면 천상녀는 천상적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천상적 인물'로서 양자는 각각 그들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원초적 분리현상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온달이 '승천하는 길목'이 되는 노송을 배어 버리는 행위이다. 이 행위는 온달과 천상녀간의 분리현상을 확인해 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분리현상을 해소시키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천상녀는 이 온달의 행위로 발미암아 승천하지 못하고 지상에서 온달과 교구하게 되는 것이다.⁹⁾

노송은 신인의 힘을 지닌 온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쉽게 배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온달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이다.¹⁰⁾ 단지 생활의 방편으로 노송을 잘라 버린 온달의 행위는 한 여인에게 한을 품게 하여, 그 후 '하늘

8) Erich Fromm은 *The Art of Love*에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그들이 부끄럽게 여긴 것은 그들 자신이 '분리 separateness'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 '원초적인 분리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Erich Fromm : *The Art of Love*, 13-16쪽)

9) 인간의 삶을 끊임없는 분리와 결합의 반복으로 보는 Erich Fromm의 견해는 이 점에 대해 매우 示唆적이다.(Erich Fromm, 위의 책, 12-20쪽 참조)

10) Edipus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 때문에 마침내 '殺父婚母'의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을 읽'으로 해서 겪어야 하는 불행을 초래했던 것이다. 그리고 온달의 이 무의식적 행위(분리현상의 확인 및 해소라는 시점에서)에는 다분히 'Edipus 복합'¹¹⁾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곧 '살부'의 모티브는 노송을 베어 버리는 행위로 대체되어 숨어 버렸고, 다만 '혼모'의 모티브만이 천상녀와의 교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²⁾

따라서 2회 이후 온달과 공주의 만남은 전술한 '원초적인 분리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¹³⁾ 같은 곳(지상)에서 같이 산다고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다.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온달과 공주의 대사는 이러한 역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작품 「온달」의 비극성은 점점 고조되어 그 절정으로 치달고 있는 것이다. 온달의 시신이 누워 있는 판이 움직이지 않았다 함은 이러한 분리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며, 온달이 죽은 후 공주도 곧 따라서 죽게 됨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온달의 죽음과 이에 따른 공주의 죽음은 가장 그 비극성이 고조되는, 즉 비극의 절정이라고 할 만하나, 온갖 우여곡절을 치르고 난 뒤 마침내 그들의 최종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비극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달의 죽음에 따른 공주의 죽음이 자의적 죽음이 못되고 타의적 죽음이라는 데 그 비극의 이중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3) 기본적 결구로서 '꿈'이야기

우리의 술한 설화나 고대소설이 이 '꿈'이야기를 그 기본적 결구로 갖고 있듯이 작품 「온달」도 그 기본적 결구의 하나로 이 '꿈'이야기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온달설화」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꿈'이야기가, 작품 「온달」에서는 도처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것은 현실과 꿈, 곧 현실과 비현

11) 김광일, 韓國神話의 精神分析學의 研究, (1)Edipus 複合

12) 작품 「온달」에서 온달 모(母)가 차지하는 비중이 「온달설화」에 비해 크다는 것도 이에 대한 하나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

13) 공주가 천상녀의 변신이든 아니든 간에 남녀의 만남에 있어서 이러한 '원초적인 분리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흔히 부부를 '가깝고도 먼 타인'이라고 이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작품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 대립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내면적인 지향점-비극의 정점-속에서 통일될 것을 전제로 한 극적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 대립이 있기 때문에 비극적 정점에서의 결합이 극화되고 확고해지는 것이다.

2회에서 온달은 공주를 처음 만났을 때 ‘꿈’에 본 여인과 꼭 같음을 알고 놀란다. 여기서 온달은 꿈에 본 여인인 천상녀와 공주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주와 천상녀가 과연 동일한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이후 온달의 현실적인 삶은 모두 이 꿈의 연장인 것처럼 되어 있다. 아니 적어도 온달만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무를 베어 버림으로써 시작된 온달의 비극은 여기에 와서 그 비극성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심화되는 것이다.

현실을 꿈의 연장으로 생각하려는 온달의 ‘의도적 착각’¹⁴⁾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드러난다.

십년 전 그날, 이몸이 하늘의 보던 그날, 당신이 내 오막살이에 오신 날, 이몸은 당신의 꽃다운 얼굴에 눈멀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멀었습니다. 당신은 그 전날 밤에 내게 오셨습니다. 산에서, 동굴에서 지낸 하룻밤에 당신은 나와 더불어 천년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날, 당신께서, 내 앞에서 갖을 벗어 보이셨을 때 나는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하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병어리된 이몸은 당신의 망극한 말썽을 들으면서도 병어리된 입을 늘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후 내 하늘이었습니다.

작품의 끝부분에서 대사는 공주에게 온달의 꿈이야기를 들려준 뒤 그 때의 온달의 심경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다.

장군은 꿈 속에서 맺으신 백년가약을 생시에 당하시고 평생을 그 꿈이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셨지요. 장군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꿈이 잊히지 않는다고 그 꿈 속에서 아직 사는 것 같다고요.

14) 현실은 결코 꿈과 동일한 차원에서 생각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는 온달 자신의 ‘의도적 착각’으로 볼 수 있다. 꿈이 현실판단의 어떤 기준은 제공할 수는 있어도(황폐강, 韓國古代敍事文學의 Archetype 참조), 꿈이 바로 현실의 연장일 수는 없는 것이다.

공주 또한 온달과 마찬가지로 '의도적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 집. 울타리. 저 절구. 그렇지. 몰래두 저 자리에 있구. 울타리. 그래요. 난 예전에 여기 와 봤어요. 분명히. 이것도 (짐승 가죽들을 쓰다듬으며) 꿈. 다 본 적이 있어요. 우스운 꼴을 한 이 꿈. 처음 봤을 때 이 꿈의 낮이 우스웠던걸 알겠어요. 그 때도 우스웠거든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소리내어 웃는다) 꿈 속에 와 본 것이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생생할 수 있을까요? - 2회, 대사와 함께 온달의 집을 처음 방문한 공주의 딸

그런데 여기가 온달네집이란 말을 듣는 때부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꿈 속 같아요. 지금껏 살아온 게 모두 꿈속 같아요. (상동)

그 옛날 그 때부터
이 몸은 꿈이었네
아둔하고 우둔한
내 님의 꿈이었네
온달 내 님○

그 옛날 그 기쁨이
별판에 흩어졌네
내 아닌 내 마음이
내 님을 죽였다네
온달 내 님○

- 3회, 온달의棺 앞에서 부르는 공주의 영창의 일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위의 인용문 중 마지막 공주의 영창은, 온달이 공주와 천상녀를 동일시, 곧 현실과 꿈을 동일시, 또는 현실을 꿈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온달의 '의도적 착각'을 대변해 주고 있으며, 공주 스스로 이것을 시인함으로써 양자의 '의도적 착각'이 등질적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 아닌 내 마음'인 공주의 꿈이 내 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이들에게 있어서 꿈은 바로 현실이요, 현실은 꿈 혹은 꿈의 연장인 것이다. 최인훈의 다른 희곡 작품 「동동 樂浪동」에서의 다음과 같은 대목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왕비 : 꿈에 만난 사람은 정말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호동 : 이것이, 이것이 정말이 된 꿈입니까?

왕비 : 정말이 된 꿈입니다. 왕자는 벌써 여기(낙랑성 연못가 : 필자 주)를 다녀 가셨고, 저를 만난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를(손을 잡으며) 이렇게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호동 : 이것이 정말이었으면

왕비 : 정말입니다

호동 : 이것이 꿈이었으면

왕비 : 이것이 꿈입니다

호동 : 어느 것이 정말입니까?

왕비 : 꿈이 정말입니다. 정말이 꿈입니다. 꿈 속에 정말이 있고, 정말 속에 꿈이 있습니다.

꿈과 현실을 동일시하는 의도적 착각¹⁵⁾은 꿈과 현실의 구분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도 간주된다. 이 점은 앞서의 분리현상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¹⁶⁾ 그러나 착각은 어디까지나 착각이므로 이에 따른 모든 불행을 감수해야만 되며, 공주와 온달이 지금까지 그들의 행동이 ‘의도적 착각’ 속에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때¹⁷⁾ 비로소 그들의 비극은 그 정점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꿈과 현실의 표면적 대립이 내면적 지향점인 비극의 정점 속에서 통일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입증되는 것이다.

4) 다른 설화 모티브(motif)의 첨가

작품 「온달」에 도입된 ‘사회위미녀설화’와 ‘치악산 상원사의 전설’에 대해서는 장덕순(韓國說話文學研究), 강성천(韓國說話의 現代의 變容) 등의 기존 연구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거기서 빠져 있는 ‘장사전설’의 도입 양상에 대한 언급

15) 위의 인용문에서도 왕비는 반신반의하는 호동을 이러한 ‘의도적 착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주와 온달의 만남이 인연에 의한 필연적 결과라면 이 의도적 착각은 그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 literary device’인 것이다.

16) 공주가 온달의 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2회에서 온달 鱷의 입을 통해 부분적인 암시는 받고 있으나, 4회에서의 공주의 말로 미루어 보아 공주는 아직 그 꿈의 내용을 모르고 있음)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도 직접적이 아닌, 대사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것도 이 분리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17) 앞의 3)의 인용문을 참조.

에만 그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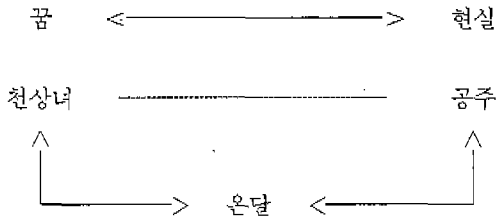
김일렬 교수는 「說話에 나타난 身分的 葛藤」이란 논문에서, 설화를 신분적 갈등 양상에 따라 비극적 좌절의 구조, 고난 극복의 구조, 희극적 승리의 구조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고, 비극적 좌절의 구조 유형으로 '장사전설' 및 '[주천] 류 전설' 등을 들고 있다. 위 논문에 의하면 '장사전설'이란 장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¹⁸⁾으로 '아기장수 전설'에 그 구조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 작품 「온달」에서 신이한 힘을 지닌 온달이 바로 이 장사에 해당된다.

장사 온달의 신분적 갈등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나타난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인 평양성에서 나는 눈멀고 귀먹은 짐승이었읍니다. 나는 보지도 듣지도 않았읍니다. 부마될 내력없는 이몸을 비웃는 소리도 나에게서 가을날 산의 가랑잎 스치는 소리더군요. 하늘인 당신을 보신 이몸은 아무것도 듣도 보지도 않았읍니다. - 2회, 죽은 온달이 공주의 꿈에 나타나서 한 말

3)에서의 꿈과 현실을 동일시하는 '의도적 착각'은 이러한 현실에서의 신분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의도적 착각'에 의해 그 신분적 갈등이 극복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현실에서의 공주와 온달의 신분적 차이보다 꿈에서의 천상녀와 온달의 신분적 차이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갈등 또한 한층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8) 김일렬은 그 예로 제주도 전설인 「吳察方」, 「다발 정운디」, 「새샘이와 정운디」 등 세 작품을 들고 있다. (지면 판제상 세 작품의 줄거리는 생략함)

←————→ : 갈등관계

…………… : 갈등관계 없음. 온달의 주관적 판단하에서는 동일인물로 간주됨

꿈과 현실 어디에서도 안주하지 못한 온달은, 앞서 본 ‘장사전설’이 신분적 갈등으로 인한 비극적 좌절의 구조를 가지듯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작품 「온달」의 비극적인 양상은 다시 확인된다.

한편 작품 「온달」에서 천민 출신의 온달이 관군에 의해¹⁹⁾죽임을 당하는 것은, ‘장사전설’의 구조적 기반이 되는 ‘아기장수 전설’에서 천민 소생인 아기장수가 관군에 의해 2차적인 죽임을 당하는²⁰⁾ 것과 흡사하다. 집권자의 기존질서를 위협하는 천민 소생의 아기장수를 제거하는 것과 자기들의 기존세력에 끊임없이 방해가 되어 오던 천민 출신인 온달을 죽이는 것은 결국 동질적인 것이다.

작품 「온달」은 기존 「온달전설」에다 후세에 만들어진 ‘장수전설’의 화소를 삽입하여 그 비극적인 양상을 심화,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3. 맺음말

이 글은 설화의 현대적 의미를 찾으려는 작품들에 대한 연구의 일단으로 우선 온달설화의 현대적 변용양상과 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요약하여 맺음말을 삼고자 한다.

최인훈 작 「온달」은 『삼국사기』 소재 「온달설화」를 소재로 취하여 그 비극성의 심화, 확대라는 차원에서 다시 쓰여졌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몇 가지 사실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 비록 온달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부하였지만, 그들이 온달을 죽일 때는 천민 출신의 이단자인 온달과 관군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20) 최래옥, 아기장사 傳說의 研究, 韓國民俗學11집 참조. 이하 ‘아기장수 전설’에 대한 것은 이 논문에 의존함.

첫째, 공주 중심의 이야기에서 온달 중심의 이야기로 바뀌어져 있는 중심인물의 이동은, 보다 완전한 전기적 형태를 갖추게 함으로써 작품 「온달」의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 온달과 천상녀 및 온달과 공주의 분리현상은 인류의 비극적 일면인 ‘원초적인 분리감’과 관련되며, 그 반복되는 분리현상은 역설적으로 끊임없는 결합의 과정이다. 온달 사후 공주의 잇따른 죽음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결합의 상태를 이룬 비극의 완성단계로 볼 수 있으나, 공주의 죽음이 자의적이 아니고 타의적이라는데 그 비극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셋째, 「온달설화」에는 없는 꿈이야기를 그 기본적인 결구로 삼아 비극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곧 꿈과 현실은 표면적으로는 대립되어 있으나, 내면적으로 하나의 지향점, 비극의 정점 속에서 통일되어 그 비극적인 효과를 한층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비극적 좌절의 구조를 가진 ‘장사전설’과 ‘아기장수 전설’의 화소를 삽입하여, 「온달설화」에는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는 비극적인 양상을 보다 심화,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위의 네 가지 사실은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극적 양상의 심화, 확대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온달」의 우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강성천, 한국설화의 현대적 변용, 동악어문논집 제11집, 1979
김광일, 한국신화의 정신분석학적 고찰(1)-Edipus 複合
김일렬, 說話에 나타난 身分的 葛藤, 경북대 어문논총 제12호
성기열, 한일설화 비교연구의 일례, 고전문학연구 1집, 1971
송요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이재선,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1977
장덕순,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대출판부, 1970
조남현, <저승새>와 보살행화설화의 대비적 고찰, 구비문학 2집, 1979
조동일, 민담구조의 미학적, 사회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속학 3집, 1970
조동일,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동아문화 10집, 1971
조동일, 韓國小說의 理論, 지식산업사, 1981(3판)
조희웅, 한국고대서사문학의 공간관념, 고전문학연구 1집, 1971
최래옥, 아기장사 傳說의 研究, 한국민속학 11집, 1979.9
최인훈,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어이(최인훈 전집 10집), 문학과 지성사, 1979
황패강, 한국서사문학연구, 단국대출판부, 1977(재판)

Abstract

A Mordern Transformation on the Ondal Tale; A Comparative Study of Choi In-Hun's Ondal with the Ondal Tale

Jeong Chan-Young

This article is one of the studies that is finding a mordern significance of the tales. First of all, I'd like to disclose a mordern transformation on the Ondal tale and its significance here.

Choi In-Hun has taken a subject matter from the Ondal tale in Samguksagi and rewritten it in order to intensify and extend its tragedy. Transformations in the structure of Ondal are as follows.

The first place, a main character is altered a princess into Ondal in Choi's Ondal. As a result, the tale takes a complete form of the biography and its tragic effect is heighten.

The second, the separation of Ondal from a fairy, or Ondal from a princess is related with 'the primal separation', which is the human's tragedy. Paradoxically, their repetitive separations go with their perpetual meetings. After Ondal's death, 'the princess' death is the final meeting and a completion of the tragedy. But the tragedy is complicated, because her death is not of her own will.

The third, Choi's Ondal concludes into the dream story. Outwardly the dream is in opposition with the reality, but inwardly they are united in the tragedy. As a result, this conclusion gets much far tragic effect.

The fourth, the writer puts the motif of 'Gangsa legend' and 'Agigangsa legend' in the main story. Therefore, Ondal's tragedy is much more intensified and extended.

The cases as above is not worked individually, but by cooperating with on another for its tragic effect. That is Ondal's excellence.